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30일 첫삽

1200억원 투입 2025년 완공
김 거래소·R&D시설 등 입주
생산·가공·유통·수출 종합기능



수산식품수출단지 조감도.

목포시에 수산식품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조성된다.

목포시는 오는 30일 대양산단에서 수산식품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1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2만 8133㎡에 지상 4-5층 규모의 2개동이 건립된다.

이 곳에는 마른김 거래소와 R&D시설, 냉동·물류창고, 임대형 가공공장, 수출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마른김 거래소는 '김은 반도체'로 부상한 김 거래의 표준을 정립하고 유통·가격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김 거래의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과 전복, 어묵, 어패류 등의 수산물에 가공·생산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갖춘 36개의 임대형 가공공장과 수산물 수출지원센

터 등이 조성된다. 그동안 목포시는 인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고급 어종과 해조류 등의 집산지이지만 수산물 가공 산업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8%를 차지할 정도지만 가공품 생산규모는 전국 2위, 수출은 전국의 10.5%에 불과하다. 특히 대중국 수산물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원물형태의 유통과 수작업 공정처리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목포시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남도는 높은 수산물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가공률과 수출비율이 낮아 수산물 가공수출단지 조성이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수출단지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 수산식품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 한전 단가공사, 사무실 거짓 신고로 낙찰 받았다

민원 처리 결과 목포에 사무실 없어...전남도 과태료 부과 등 검토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목포전력지사에서 실시한 '2024-2025년 목포전력지사 변전협력회사 총액공사(이하 단가공사)' 사업의 등록기준 미달 의혹(광주일보 2024년 1월9일 자 13면 보도)과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민원(1AA-2313-1024717) 처리 결과, 사무실을 거짓 신고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해당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가공사의 경우 공사 특성상 사업소의 송변전설비가 고장이 나면 사무실을 두고 신속 대응해야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 사무실 등록사항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게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해당법 시행령 제18조의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사에 대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미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

체는 전기공사업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제한경쟁을 통해 총액별 단가공사를 시행했으며, 보험료와 안전제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22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 자격은 345KV급 변전소 건설공사, 변전전문 변압기2급, 변전전문 개폐기2급 등의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업체가 대상이다. 여기에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한전 변전협력처 업무처리기준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설비운영사업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회사를 제1순위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해당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무실의 현장 실사를 거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

명서 등을 통해 서류상 검토로 이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이며, 전남도의 공문대로라면 순위에서 밀려 낙찰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본보 취재 과정에서 목포전력지사 관계자는 사무실 유무를 실사,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신문고의 접수민원 처리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B씨는 "전남도의 민원접수 결과 사무실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해 낙찰을 받았으며, 목포전력지사 담당자가 낙찰예정업체의 주된 영업소(사무실)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면 거짓 5점을 받지 못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등록신청 접수 시 현장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사업자 중복 등록 등 거짓 신고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박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2027년까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가 조성될 전망이다.

해남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사업 추진을 구체화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클러스터는 수산양식업과 관련된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 실증 기능을 집적한 산업단지다.

2027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내에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3만3000여㎡의 부지

에 연구지원센터, 기업지원동, 홍보물류AS센터 등을 갖춘다.

수산양식 기자재를 실증시험할 수 있는 육상테스트베드 1400㎡와 해상테스트베드 500㎡도 조성해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의 랜드마크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실시계획을 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위해 외국어 배워야죠

HD현대삼호 임직원 대상
베트남·네팔·태국어 등 교육

HD현대삼호가 외국인 근로자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임직원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육'을 벌인다. 베트남어 교육은 임원과 부서장, 사내협력사 대표 등 170여 명을 대상으로 현대삼호 기술교육원 대강당에서 지난 16일과 23일, 30일 세 차례 열린다. 현대삼호 소속 베트남어 통역사는 참석자들에게 베트남 기초 회화를 가르친다. 국가 문화와 음식·식사 문화, 필수 안전 대화 등도 알려준다. 현대삼호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베트남 출신 근로자와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안전 작업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달 '베트남의 달' 지정을 시작으로, 현대삼

호는 6월 네팔, 9월 태국, 10월 우즈베크의 달을 운영한다.

현대삼호는 해당 국가의 날에 맞춰 외국어 교육을 지속해서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대삼호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 문화와 사회에 관한 교육도 하고 있다.

이달 현재 1차수 314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1200명을 추가로 교육할 계획이다.

HD현대삼호에는 현재 34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내 협력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생산 인력의 30%에 달한다.

현대삼호는 만성적인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숙련인력으로 키워낼 방침이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다문화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군수 박우량·왼쪽 세 번째)을 찾은 폴린 제임스 크로스(왼쪽 두 번째) 주한영국대사 등이 신안갯벌의 전통어업의 하나인 맨손 갯벌낙지잡이를 체험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주한영국대사 1박2일 신안 갯벌 체험

세계유산 등재 과정 등도 살펴봐

신안군은 폴린 제임스 크로스 주한영국대사가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을 찾았다고 19일 밝혔다.

크로스 대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갯벌을 체험하고 갯벌의 유산 등재 과정, 관리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그는 신안 무인도를 탐방하고 갯벌 전통어로, 맨손 갯벌낙지잡이 등을 체험했다. 해양수산부는 신안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갯벌은 복잡한 수문학적 연안 퇴적체와 높은 종 다양성을 가진 생태계를 자랑한다. 전 지구적인 이동을 하는 철새 부양의 중요성을 인정받

아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신안 불부기도에는 1만여 마리(5000쌍)의 갯벌갈매기가 번식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갯벌의 보전·관리는 단기간에 이루진 것이 아니고 수십, 수백 년간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관리해 준 덕분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다"며 "이번 주한영국대사의 방문으로 신안군민과 함께 이뤄낸 신안갯벌 세계자연유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주민들의 희생과 노고가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의 유명 예술가인 안토니 고틀라가 비금도에 설치할 예정인 '바다의 미술관'에도 관심을 보인 크로스 대사는 설치가 마무리되면 다시 신안군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가abrielle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